머지 않아 만나게 될 내 얼굴, '노년'을 안아보며

《꽃 진 저 나무 푸르기도 하여라》 유경 지음 | 서해문집 | 280쪽 | 값 8,500원

프리랜서 사회복지사인 유경 씨(43)는 13년 전 기독교방송국 아나운서 생활을 접고 노인사회복지사의 길을 택한다. 그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난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의 힘'을 발견하면서 '노년 삶'의 중요성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르신들이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좋았습니다.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못 본 영화와 책을 많이 접했는데 노년을 주제로 한 문화가 없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그의 책은 영화와 문학 속 '노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색다른 노년읽기다.

"그 장면에서 할머니가 등장했나?" 할 만큼 소외되었던 작품 속 노인을 찾는 그의 눈은 섬세하고 따뜻하다.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부터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고양이를 부탁해〉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노인의 모습도 가지각색이다. 여기에 노인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난 유경 씨의 경험담은 '냄새나서 다가가기 싫은 노년'을 '이해하고 싶은 노년'으로 탈바꿈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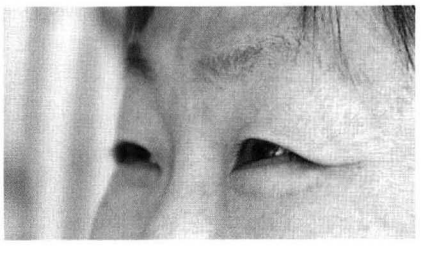
"어르신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얻어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어르신들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 덕분에 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노년'을 선물이라 말하며 노인들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삶'을 찾는다는 그는 '노년'을 친구삼아 종횡무진 활약한다. 〈오마이뉴스〉에 노년관련 칼럼을 연재하는가 하면 노인대학에서 노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지난 4월부터는 라디오 노년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것도 모자라 온라인 상에 〈어르신 사랑 연구 모임〉(http://cafe.daum.net/gerontology)을 만들고 노인복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득 찬 일상이 지겨울 법도 하다. 그렇지만 그는 귀가하는 지하철에서 노인을 만날 때마다 "어디 가세요?"라고 넉살좋게 말을 건네며 '노년 사랑'을 실천한다.

"노인은 머지않아 우리가 만날 우리의 얼굴입니다. 싫다고 늙지 않는 사람은 없죠. 모두들 노인을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지 관심과 이해를 갖다 보면 누구나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생활예절을, 젊은이들에게는 어르신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그는 '관계 맺기'를 통해 자신의 노년을 준비한다고 한다. 재산, 건강, 일과 함께 중요한 것이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와 소통이라는 것이다. 그의 책 한쪽에는 "노인복지 괜히 했구나"라는 한숨도 담겨 있다. 유경 씨는 부모님처럼 함께 하던 어르신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경험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으로 향하는 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고 싶다며 다시 일어선다.

"앞으로도 중년여성을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노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께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선사하고 싶거든요."

유경 씨는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떠나는 《소피의 달빛 담요》 속 거미할머니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한다. 〈어르신 사랑 연구 모임〉에서 '구슬 꿰는 실'이라는 아이디로 세상의 여러 구슬을 꿰려는 그의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춘에게는 노년을 이해시키고 노인에게는 아름다운 노년을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펴냈다는 이 책은 유경 씨가 보내는 또 다른 '사랑의 실'이나 다름없다.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